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 일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중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6 중헌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죄 사함을 얻는 은총의 자리

오늘(23일), 찬양예배 시 2006년 2차 학습세례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행 2:38)

오늘(23일), 찬양예배 시 제2차 학습세례식이 있습니다(유아세례식은 오후 3시 갈릴릴루). 학습, 세례, 입교, 개종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며 십자가 길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교회에 등록한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역을 다 마치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마 28:19). 그러므로 세례는 모든 신자들이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신자가 되기 위한 단순한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사는 것입니다(로 6:4). 결국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은총의 자녀가 됩니다(갈 4:7).

이처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우리 교회의 학습·세례식은 1년에 6차례 짝수 달 넷째 주일 찬양예배 시에 있습니다. 학습은 만 14세 이상으로 교회 등록 후 6개월 후에, 세

례는 만 14세 이상으로 학습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세례를 받으신 분은 입교할 수 있으며 개종을 위한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심이 담긴 회개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막 1:4). 진심으로 회개치 않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 세례는 무의미한 것이며, 그것은 위선입니다. 이처럼 세례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오늘 학습·세례 및 유아세례, 입교, 개종자들은 더욱 근신하여 십자가만을 붙들기 바랍니다(행 2:38). 더불어 모든 성도님들은 이들이 세례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참 신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막 16:16).

위임목사님 동정

위임목사님께서 세미나 참석 관계로 출타 중이십니다.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은 나의 생명!

자존심(1) (욥 1:3)

자존심의 포로

많은 사람들은 자존심이 오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내면에 있는 자존심이 자신을 속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를 가만때는 자존심이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나는 자존심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존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거만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자신의 양심은 속이지 못한다고 믿었지만, 실은 당신의 양심이 당신을 속일 때가 더 많습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욥 1:3). 아담과 셋등으로 태어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교만으로 가득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속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던 교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속였습니다. 결국 운명을 의지하며 공공연한 비난과 파괴를 일삼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교만으로 가득한 마음 때문인데, 아마도 여러분은 자신의 자존심을 통찰할 수 있는 유익을 얻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명성으로 인한 자존심

에돔 족속은 그들의 수준 높은 삶의 지위로 인해 커다란 자존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높이 솟은 탑과 견고한 담으로 둘러싸인 그들의 집을 동경하자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명예를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오바다는 그들이 크게 멸시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욥 1:2).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잘못 판단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파괴를 받을 것이요 너희의 해하기를 그 해아림으로 너희가 해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마 7:2).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다른 사람을 나쁘게 판단하며, 그 자신을 속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깔보는 무례한 것을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부요함으로 인한 자존심

에돔 족속은 그들의 거주지가 지리적으로 안전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커다란 자존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집과 사랑스런 배우자, 육신의 건강과 행복한 가정, 그리고 일에 대한 성취는 안락함을 느끼게 하며, 그것들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에돔 족속은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욥 1:3). 여호와 하나님께 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욥 1:4). 에돔 족속의 상황은 실제로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불행에 향해 걸주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외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좋게 여기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삶은 한 순간에 바뀌어 버릴 수 있습니다. 안전은 여러분의 세상적인 가족이나 친구, 집이나 고용된 직장에 취할 수 없습니다. 참된 안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계속)

김성관 위임목사

Sermon for Next Sunday

APPRECIATION

⁽¹⁾I will extol You, O Lord, for You have lifted me up, and have not let my enemies rejoice over me ⁽²⁾O Lord my God, I cried to You for help, and You healed me ⁽³⁾O Lord, Thou hast brought up my soul from Sheol; You have kept me alive, that I would not go down to the pit ⁽⁴⁾Sing Praise to the Lord, you His godly ones, and give thanks to His holy name (Psalm 30:1~4)

This thanksgiving psalm is a prayer between David and God. In his prayer, David worships God by acknowledging His deliverance. Often times we pray to God in appreciation for material blessings, like food, money, friends and family, but we forget to appreciate the most important thing, His grace. Here David thanks God for lifting, healing, and keeping his soul alive. He praises God for his holy name because he truly appreciates God drawing him up.

Today is the third Sunday of Easter. Jesus has resurrected! He died to live again. We must appreciate and praise the Lord for drawing us up and not leaving us in darkness. "For my soul has had enough troubles, and my life has drawn near to Sheol. I am reckoned among those who go down to the pit; I have become like a man without strength"(Ps. 88:3&4). Without Jesus' resurrection, that is our exact situation. We need to appreciate God's grace to God. His deliverance of our souls through Jesus Christ is the most wonderful of all gifts. Each day we need to personally thank Him and praise Him for this amazing love. Like David, we need to lift Him up in prayer and show Him our hearts of appreciation for His salvation.

David's prayer begins, "I will extol You, O Lord, for You have lifted me up, and have not let my enemies rejoice over me"(v. 1). God protected David. He saved him from his enemies and death. When the first Christmas came, Zacharias also praised the Lord, "Because of the tender mercy of our God, with which the Sunrise from on high will visit us, to shine upon those who sit in darkness and the shadow of death, to guide our feet into the way of peace"(Lk. 1:78&79). The Messiah's coming made this a reality, and Zacharias appreciated it. Without Jesus' resurrection, we sit in darkness and the shadow of death. Jesus has the power to lift us up, and not let our enemies rejoice over us. He defeated death, so that we might have eternal life. Do you appreciate this?

David also prayed, "O Lord my God, I cried to You for help, and You healed me. O Lord, You have brought up my soul from Sheol; You have kept me alive, that I would not go down to the pit"(vv. 2&3). He experienced God's healing power. He understood that it was God who kept His soul from hell. Isaiah prophesied, "For sheol cannot thank You, death cannot praise You; those who go down to the pit cannot hope for Your faithfulness"(Isa. 38:18). Jesus pulls us out from the pit of hell. He draws us up, all the way up to heaven. David cried out to God because he really appreciated God. If we do not really pray to God with thanksgiving for His love, then we do not really appreciate His love. God gave us His Son to lift us up from death. He gave us His Son to heal our sinful nature. Hosea 6:1 says, "Come, let us return to the Lord, for He has torn us, but He will heal us; He has wounded us, but He will bandage us." If we do not come to Jesus, we cannot get better. If we do come, He changes

us into new creatures. Do you appreciate this?

David appreciated God's power, not his own. Even though he was king of Israel, he did not rely on his own efforts but turned to God for help. He let God be God. If we work hard at changing our bad habit, like not smoking, swearing, or drinking, and thank God for our effort, that does not count! The only thing that counts is crying out and coming to Jesus. He came to this earth and died for us. He resurrected, so that we could cry out from Sheol to help us. When we do it, He appreciates it. God calls, "Return, O faithless sons, I will heal your faithlessness"(Jer. 3:22a). Our response should be, "Behold, we come to You for You are the Lord our God"(Jer. 3:22b). We cannot correct our bad habits; we have to go to Jesus. We need His blood to cleanse our sin.

Peter followed Jesus, but then rejected Him. In Acts 3:16 he says, "And on the basis of faith in His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ich has strengthened this man whom you see and know; and the faith which comes through Him has given him this perfect health in the presence of you all." Peter became a child of God through the blood of Jesus. He appreciated His holy name. He remembered that to pray to God you have to pray to Jesus. Jesus is the only way to God. Jesus is holy, "And the four living creatures, each one of them having six wings, and full of eyes around and within; and day and night they do not cease to say, 'Holy, holy, holy is the Lord God, the almighty, who was and who is and who is to come'(Rev. 4:8). His holiness makes us holy. Do you appreciate this?

David called on the congregation, "Sing praise to the Lord, you His godly ones, and give thanks to His holy name"(v. 4). If we come to Jesus, He will cleanse us of every sin because He is holy. We must appreciate this. Isaiah 6:3 tells us, "And one called out to another and said, Holy, holy, holy, is the Lord of hosts, the whole earth is full of His glory." The blood of Jesus makes us holy, holy, holy. It forms us into a child of God. Jesus redeems sinners and turns them into holy saints so that they can appreciate and glorify God. David sang, "Now as for me, I said in my prosperity, 'I will never be moved...' That my soul may sing praise to You and not be silent. O Lord my God, I will give thanks to You forever"(Ps. 30:6-12). This is God's grace. Sinners become saints, not temporarily, but eternally praising the Lord. The resurrection is a gift of life from God. Do you appreciate this?

My dear friend, Jesus takes sinners from the darkness of death to the resurrection of eternal life. This is the way of faith, the way of eternity, the way of born-again Christians. Jesus will give you His Holy Spirit, His full love, so that your life will be perfect. Do you really appreciate that the Lord God lifts, heals, and keeps your soul alive? 

다을 주일 설교

감 사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 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부르짖었노라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찌어다 (시편 30:1~4))



김성판 목사

이 감사의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양식, 재물, 친구, 가족 등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는 잊어 버립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끌어내 주시고, 고쳐 주시며, 영혼을 살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는 자신을 끌어올리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찬양

오늘은 부활절 후,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가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그대로 버려 두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서 가까왔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도다” (시 88:3,4).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상황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은총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은총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배수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기도 중에 주님을 높이며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드러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1절).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대적과 죽음으로부터 다윗을 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사가랴 역시 이처럼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공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돌은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취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고 하리라” (눅 1:78,79).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현실이 되었고, 사가랴는 그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대적이 우리로 인해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은 또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부르짖었노라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2,3절). 다윗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음부로부터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음부가 주께 사려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렁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도” (사 38:18).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주님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것입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소리로써 부르짖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쫓으셨노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노라 싸매어 주실 것이요” (사 38:18) 예수님께서 나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좋아질 희망이 없습니다. 만약 주

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 감사하십니까?

배역한 자식들이 돌아오라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만약 흡연, 거짓 맹세, 음주 같은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애쓰면서 점차 나아지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음부로부터 구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이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렘 3:22a).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렘 3:22b). 우리는 스스로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를 깨끗케 하시는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한때 주님을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3:16에서 그는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예수님을 통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천에도 계시고 대에도 계시고 창자 오실 자라 하고” (계 4:8). 그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 감사하십니까?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찌어다

다윗은 모인 무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찌어다” (4절).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케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이사야 6:3은 말합니다. “서로 찬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광히 요동짓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는 잠잠히 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해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영광히 감사하리이다” (시 30:6-12).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잠시 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말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 진실로 감사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어두운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 영원의 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성령과 충만한 사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완전해질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끌어올리시고, 고치시며, 살리신 것에 대해 진실로 감사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는 아멘 찬양대



김선국(장로, 아멘 찬양대장)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시 100:4). 십자가 구원의 은총과 감사가 없는 찬양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종과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신자들이 모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영으로 드리는 찬양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의 마음은 늘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십자가의 보혈로 보충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삼아 주님을 감사하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가 되기 위해 아멘 찬양대의 전 회원들이 복음으로 하나되어 있습니다.

아멘 찬양대는 주일 4부 예배(오후 1:00)를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대원은 반드시 찬양대 양성부를 수료해야 하며 신입 대원이 들어올 경우 별도의 4주간 훈련과 신령한 예배에 대한 교육 후에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한 총 220여명의 찬양 대원이 대속의 은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 금요일(1~3주), 토요일에 모여 영으로 드리는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 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습이 없는 주간에도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말씀과 연습을 독려하여 항상 은혜로 순만한 대원들이 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원들 간의 애경사가 있을 때에 심방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대원과 오케스트라대원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항해 매 주 찬양을 드릴 때 감동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히 9:14). 구속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없이 찬양을 드린다면 부르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찬양은 영적으로 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직접 보시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 십자가의 사랑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데 없는 우리 인간을 어디다 쓰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귀하신 몸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주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은 당연한 우리들의 본분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고전 10:31). 저희 모든 대원들은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일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는 구속의 찬양 드리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찬송하는 찬양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시 71:23).

사순절을 마치며

교만과 외식을 버리고!

“절은 깨끗하나 속에는 탐욕과 악덕이 가득하고,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드리고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으며, 회담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만 받는 것을 기뻐하고, 자기의 어려운 짐을 남에게 지우고 자신은 손가락도 대지 않는” 이처럼 사순절 동안 사복음서를 묵상하면서 마치 거울을 통하여 나를 보는 듯하여 부끄럽고 마음이 너무 아파 어디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주일성수는 물론이요, 초등학교 때부터 십일조 생활과 찬양대 봉사를 해왔고, 또 교사와 청년회장 등을 하여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하며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주위에 열심을 내지 않는 자제들을 보면 나의 잣대로 그 사람의 신앙을 저울질하는 교만과 외식에 찾아 있었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신앙 생활, 남이 보기 위해 칭찬할 만한 신앙인의 외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고만한 자를 살아하시는데 성령을 속이고 영광도 제가 다 받아 누린 것이지요. 예수님은 칭찬받는 것조차 주위하며 피라라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화평한 무덤과 같은 제 모습을 보이며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며 우셨을까요?

이런 저를 주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를 옮겨 심어 주셨습니다. 섰포지는 간단한 메시지만 통해 나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지금 내 모습을 똑 바로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동안 기본이라고 여기며 뒤통으로 미루고 한탄도 십하게 한 적이 없었던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영혼 구원,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처음에 천국은 나에게 막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내가 가야할 좋은 곳이었지요. 지금은 할 일이 많고 날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여기 있지만 지금은 안 되고 아주 나중에 가야하는 곳이었습니. 하지만 이런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통해 하늘 나라에 대한 큰 기대와 소망과 기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모든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알려지니 말씀하셨는데,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셔서 회개하고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지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살아계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니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나를 강한 팔로 붙들어 주세요.

형희정(성도, 1교구)

십자가!

보혈의 피, 죄인, 삶

십자가! 어찌 십자가만 단어 앞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찌 멈추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삶 속에서 내 죄로 인해 다가는 십자가와 연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얻게 하시고자 주님께서 십자가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나갈 때 감당하기 조금만 힘들어도 다 나의 십자가라 말하지 않는지 의문이 생긴다. 우리 인간은 그만큼 주님이 자신 십자가의 의미를 잊고 사는건 아닌지 묻고 싶다.

예수님이 자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는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며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혈의 피’로 나에게 다가온다. 주님이 그러했듯이 피 흘림은 자신을 죽이는 것인데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외에 소중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것들(주님과 반대된 것)을 놓을 때 자기부인이 되어지는 것 같다. 주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귀하게 보시고 자신을 희생하셨던 모습처럼, 나도 십자가의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주권이 내 삶 속에 이뤄지고 주님 권에서 살아가게 될 것 같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복음에 기초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피게 한다. 나와 예수님과 관계는 어떠한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십자가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과 나는 교제 가운데 내 모든 기쁨의 영역에서 주님께 정점으로 충성되어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피땀만 인간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난 오늘날도 자유속에서 평안함을 감히 누리고 살아간다. 그러기에 난 오늘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날마다 십자가 그늘 밑에서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예수님만을 바라본다. 십자가의 은총 안에 살수 있도록 그제 나의 무릎을 나타 무릎으로 만든다.

박민정(장사, 청년2부)

회칠한 무덤이 바로 '나'구나!

선교지를 보니 거의 모든 지역이 강원도 산골 같은 느낌이었다. 가도 가도 나무만 보이고 마을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길을 따라 깊이 들어가니 신기하게도 마을이 나왔다. 처음으로 만난 현지 사람에게 사람의 마음으로 인사를 건넸으나 나의 마음 한 켠에는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요.'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이런 인간적인 두려움들을 모두 버리게 하셨다. 나의 철저한 준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때문이었다.

한번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신 할아버지께 성경을 드렸더니 할아버지는 "이거 얼마 드려야 하나? 어떻게 보 답해야 하나요?"라고 물으셨다. "아니예요. 할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선물이에요."라고 대답하니 기쁘고 환하게 웃으시며 마치 아기를 안은 듯 조심스럽게 성경책을 안고 계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당신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복음은 은혜의 선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는 그 은혜를 두고 마치 대가를 치르듯이 흥정해오지 않았는가? 나의 주변에는 말씀이 너무 널리 있어서 그 귀함을 모르지 않았나? 나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한낱 소설책이 되어 버린 건 아닐까? 예수님마저 소설의 주인공이나 내가 상상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던 아닐까? "아! 회칠한 무덤이 바로 나구나!" 나는 주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이단비(대학부 11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 나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죽으라고 하시던 죽으리라는 각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신동수 집사)

✧ 그 동안의 단기 선교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현지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짧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해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오겠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선교에 방해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김애자 권사)

✧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통성이 거하시고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터하시어 90%가 넘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 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정경의 권사)

✧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오직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 복음만 전하기 원합니다. 교만에서 벗어나 순종하고자 합니다. "현지의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이재철 집사)

✧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은순 집사)

✧ "오직 망글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단의 세력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반석으로 튼튼하게 건널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영하 집사)

✧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발을 씻기듯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장상집 집사, 중무)

✧ 주님께서 보내심을 믿고 의지하여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겠습니다(롬 10:5). 만일 영혼들이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게 하소서(행 16:14). (정장수 피택장로, 팀장)

(3교구 5지역)

*현재 사역 중인 이 팀은 4월 18일부터 26일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이 외에 현재 사역 중인 5개 팀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의 사역

나에게 선교는 정말이지 너무나 막연한 것이었다. 많은 준비와 기도로 주님의 역사를 보며 은혜 받았고, 성령 충만해지는 친구들을 보면 내심 부럽고 나도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껴 보고 싶었지만 내 앞에 있는 세상 문제로 선뜻 나서지 못 했다. 그러나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은총으로 내 마음에 변화가 생겼고, 결국 선교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한 순간부터 주님의 계획이 시작되었던 것 같다. 선교 모임을 하게 되면서 말씀과 더욱 가까워졌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욱 길어졌다. 선교 준비하는 중에 팀장님이 말씀하신 '사단들은 자기의 영혼들을 잃어 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거'라고 했던 말이 사역하는 내내 생각났고, 그 생각은 나로 하여금 무기로 기도하게 만들었다.

드디어 선교지에 도착했다. 선교가 처음이라서 두려움이 많았는데 처음엔 그 곳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무기여서 숨기 차고 전등거리는 날씨가 지속되었다. 한국에서의 생활과 너무 달라서 불평 불만을 늘어 놓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일깨우시고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해 주셨다. 하루 하루 사역 평가회를 하면서 점점 더 나아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더욱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셨다. 현지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한편으로 저들이 나와 똑같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민의 90% 이상이 가톨릭을 믿으며 예수가 아니라 마리아와 베드로를 섬기는 영혼들을 보며 나는 눈물 흘리며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선교를 가기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 나와 동행하셨고, 나를 일깨워 주셨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셨던 주님을 찬양한다.

(김성은(대학부 19팀))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4월 27일(목) ~ 5월 4일(목)	15교구 4지역	김태식
4월 27일(목) ~ 5월 6일(토)	7교구 1지역	조종민
4월 28일(금) ~ 5월 6일(토)	18교구 3지역	김원호
4월 28일(금) ~ 5월 6일(토)	18교구 5지역	한민교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4월 17일(월) ~ 4월 26일(수)	12교구 4지역	강창식
4월 18일(화) ~ 4월 26일(수)	3교구 5지역	정창수
4월 18일(화) ~ 4월 26일(수)	직 원(5)	최준호
4월 18일(화) ~ 4월 27일(목)	5교구 5지역	정태동
4월 18일(화) ~ 4월 27일(목)	15교구 2지역	이강근
4월 18일(화) ~ 4월 27일(목)	15교구 3지역	최진성

주님의 선물, 수화!

농아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인 수화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수화라는 언어가 있기에 수화 통역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수화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농아인들에게 준 참 귀중한 선물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은 왜 나에게 장애를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 아픔을 주셨는지 잘 모르지만 주님의 깊은 섭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죄가 많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장애인이 된 것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을 때는 감사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돌아보니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장애인을 멀리 하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장애인이 있는 그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곳에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한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 곳에서 마땅한 교회가 없거나 예수를 잘 믿는 수화 통역자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농아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농아인들이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예배를 맡겨 드릴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나는 대체 뭐니까?' 참 부끄러웠고 회개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죄가 많은 내가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어 단기 선교를 갔다는 자괴감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보여 주신 사랑과 주께서 나에게 장애를 주신 이유가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늘 기억하며 온 천하 농아인에게 수화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중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전예영(에바다부)

어린 아이같이 순수한 믿음



기존에서 보면 흠이 많고 부족하기만 하지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마음도 어린 아이와 같아서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줄 압니다(마 18:3). 그리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렇처럼 아름답고 귀한 예배자들도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교사로서 사방부에 왔을 때 무언가 제가 많은 것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도와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은 내가 저들보다 육적으로 건강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학생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러한 생각이 참으로 교만이라는 것을 자주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히려 영적으로 장애를 지닌 최약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학생들은 어디서든 예수님을 찬양하

우리 교회에는 농아인들을 위한 에바다부(주일 오전 9:00, 오후 1:00, 제2교과관 1층)와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사랑부(주일 오전 11:00, 출현복지관 지하 1층)가 있습니다.

또한 평일에는 정신장애인들을 위해 출현복지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장애는

결코 장애(障礙, obstacle)가 아닌, 예수님의 장애(長愛, everlasting love)를

깨닫는 은총이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하는 교사와 장애를 안고 있는 학생들이

주님께 드리는 생생한 믿음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바쁜 손, 넘치는 사랑

"호찬아, 밥 다 먹었니? 우천이 양말 좀 갖다 줘." 후다다, 후다다... "엄마! 저도 같이 가요!" "자, 빨리 치카치카하자." 주일 아침이면 여느 아침과 다르게 분주합니다. 태어난 지 7개월 된 동생의 물건을 챙겨다 주는 5살짜리 큰아이가 호찬이가 더없이 고마운 시간입니다. 그렇게 정성없이 준비하다가 교회로 향하는 차에 오르며 이내 후회를 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준비를 시작할 걸...' 스스로를 챙기기에 아직 어린 아이 불을 키운다는 핑계로 교회에 늦게 나오는 일이 많은 우리 가족은 오늘도 그런 아픔을 보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영아부로, 유아부로 여기 저기로 정성없이 움직이다가 점심 때가 되어서야 에바다부에 올 수 있었습니다. 에바다부 식구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반 학생들인 승진이와 석남이를 만났습니다. 환하게 웃는 미소와 함께 곧 두 아이의 손이 바빠지고 많은 수화 단어들이 한꺼번에 쏟아

집니다. "선생님, 왜 늦게 오셨어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수화),

"보세요, 오늘 새 친구도 왔어요."(수화), "저 친구가 교회 오려고 오늘 5시

에 일어났어요."(수화). 두 아이의 미소를 통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일찍부터 경험하였을 아이들이 이 어느 어른들보다도 더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앞장서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수화를 통한 교제를 나누면서 마음 한 편엔 위우치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데는 나이의 많고 적음도 문제가 아니고 신체적 조건도 문제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이 아이들의 귀와 입이 되어 예수님을 알고 전하는데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다면 안 되지." 숙연해지는 마음 한편으로는 미리 준비하여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앞세워 내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끄러운 마음으로 우리 에바다부 식구들의 귀와 입이 되길 다짐하였습니다. '예수님, 저의 이 미련한 영육을 용서하시고 새 힘을 주시사 주님이 내려 주신 소명 감당하는데 부족한 없길 기도합니다. 아멘.'

김유석(교사, 에바다부)

고, 사랑을 고백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연약한 몸짓이어도 온 몸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섞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예수님을 크게 찬양하지 못할 때가 많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땐 맘 속에 다른 생각들이 많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내 생각의 틀로 재단하여 왜곡되게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제가 아닐까요?

학생들은 아이트지, 나! 많은 어른이든지 그들의 모습 가운데 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함없이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학생들은 평생을 어린 아이와 같이 지낼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불편할 때가 많지만 천국에 가까이가 평생을 주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갖고 살 것입니다. 학생들은 한 번 가르쳐 준 것은 반복과 학습을 통해 체화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잊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반복해서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듣고, 보지 않는 듯해도 보고 기억하며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분명 이들의 마음판에, 귀에 새겨질 것입니다. 날 사랑하시는 분, 날 위해 돌아가신 분,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자 하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을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귀한 복을 받은 사랑부 학생들, 저 또한 남은 인생을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해 봅니다.

김현진(교사, 사랑부)

교회 탐방 임마누엘 오케스트라

십자가 복음을 위한 찬양의 하모니



1996년도에 처음 결성된 임마누엘 오케스트라는 이제 10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악기로 하나의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이들의 마음을 들어 보았습니다.

임마누엘 오케스트라를 소개해 주세요

편곡자를 포함해 21명의 대원이 20세에서 63세까지 폭넓은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찬곡자와 비찬곡자가 함께 주일 2부 예배 때 악기(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달란트를 봉상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비찬곡자라도 찬양위원으로 문의하세요.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유원주(바이올린, 총무)

악장에서서 연가와 받은 은혜는?

음악이 다른 악기는 각기 다른 색깔로 내지만 하나의 찬양으로 소리가 모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악기들이 적절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는데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적게 악기로 연가해 동행하는 것만으로 늘 행복합니다. 찬양을 연습하다 보면 더 많이 말씀에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로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매스데(바이올린, 악장)

편곡을 하면서 받은 은혜는?

작곡을 찬양한 제게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 시작한 봉사인데 주님은 제게 신성한 예배를 위해 미려 준비된 마음을 매 예배 때마다 부어 주셔서 그 은혜로 감동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손은애(편곡)

악기들의 특징은?

'바이올린'은 가장 높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음 중에서도 좀더 부드러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매스데(바이올린, 악장)

'플루트'는 찬양대에서 소프라노에 해당하는 고음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노은영(장사, 플루트)

'첼로'는 저음 악기로 사람의 음성과 비슷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화영(첼로)

'클라리넷'은 찬양에서 고음까지 여러 색깔의 다양하고 매력적인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종림(장사, 클라리넷)

임마누엘 오케스트라에서 봉사를 하며

첼로를 하면서 저는 음악으로 나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케스트라로 봉사하면서 찬양을 통해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외향적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해야만이 주님만을 높이는 온전한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화영(첼로)

교회 음악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35세의 늦은 나이에 시작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정공을 하진 않지만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제가 쓰임받는 것이 감사합니다. 잔잔히 처음 메시아 연수에 참여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처음 대하는 악보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더 헌신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에 기쁨 뿐입니다. 장시자(장사, 바이올린)

저를 고3 때 찬양대 오케스트라가 생기면서 플루트를 공부하던 제가 오케스트라에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 악보만으로 찬양을 연주했던 제가 이제는 가사를 음미하며 그 찬양에 빠져서 연주할 수 있게 되어 기쁨을 느낍니다. 노은영(장사, 플루트)

힘이로 시작한 클라리넷을 통해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는 비찬곡자에서 악보와 악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찬양의 기쁨을 느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지만 듣지만 다른 사람의 음을 들으며 고음을 할 수 있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이종림(장사, 클라리넷)

군대에서 장교로 있으며 배우고 된 첼로로 이제는 오케스트라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같이 죄 많은 사람이 찬양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 너무도 정말 행복합니다. 한성식(첼로)

기도 제목은?

오케스트라가 처음 조율을 위해 '오보에'라는 악기의 소리(라) 소리를 듣고 현악과 관악 등 모든 악기가 소리를 맞춥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매주일 임마누엘 오케스트라가 임마누엘 찬양대와 더불어 마음과 영으로 드리는 오케스트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문성(만수집사, 지휘)

주님께 쓰임 받는 것 하나만으로 정말 행복해 하는 임마누엘 오케스트라 대원들. 온전한 찬양의 도구로 쓰여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편곡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찬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저 오랫동안 입술로만 불러왔던 찬송, 가사와 뜻보다는 음악적인 아름다움에만 치우쳤던 나의 찬송 습관이 변하여 어느 때부터인가 참아 름답고 귀한 체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찬송이 나의 마음을 적절하게 대신 표현하여 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나도 모르게 눈시울을 적실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좋아했고 교만하였던 제가 작년에 암으로 판명받았을 때 많은 분들의 기도해 주님께서 치유의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저를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름 수 없네 영육 내 대신 둘 아 가진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제는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좇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온총을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찬양 드리며 제가 가진 전부를 주님께 모두 내어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름 수 없네 이 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기지 못해" 이전에 좋아했던 세상 것을 모두 버립니다. 이제 세상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대체 할 것이 없음을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름 수 없네 유희와 꾀악이 물려와도 주 삼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저의 다짐, 고백 그리고 모든 간구가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송합니다. "세상 즐거와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의 말씀 붙들고 달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라 되도록 온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박성준(집사, 할렐루야 찬양대)

♡ 새 가 곡 · 음 · 환 · 영 · 합 · 니 ·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237	이영규	2	청년2부 김지현(5)	1260	김정환	19	예배부 송용규(19)	1283	김한경	7	소방부 김 건(7)
1238	박광수	9	청년2부 전희복(9)	1261	남은경	19	청년1부 변연욱(9)	1284	박학욱	7	소방부 김 건(7)
1239	김정영	9	고등부 이명태(9)	1262	정경미	1	장년3부 김필환(18)	1285	이태원	1	청년2부
1240	김영만	16	청년2부 장수민(11)	1263	장성숙	13	장년1부 박종훈(14)	1286	황보비	19	외선부 한정현(5)
1241	김종철	10	청년1부 박승태(10)	1264	김영일	11	소방부 송희영(3)	1287	이성재	13	청년1부 허정숙(17)
1242	박종철	12	청년1부 김경희(7)	1265	이영희	19	청년1부 주국재(3)	1288	이재기	13	청년2부 배만수(1)
1243	서 내	19	외선부 김태현(1)	1266	윤정경	19	청년1부 박성민(11)	1289	김영애	10	청년1부 배종훈(10)
1244	정 바	19	외선부 이현숙(13)	1267	김재영	19	청년1부 박성영(11)	1290	박두승	19	외선부 양원익(18)
1245	지원환	19	외선부 조성욱(1)	1268	김우현	1	장년1부 최계열(1)	1291	안인나	19	외선부 김철환(1)
1246	한소크	19	외선부 김성애(13)	1269	김성수	19	사랑부 조영희(4)	1292	서라봉	19	외선부 전영숙(4)
1247	이희룡	19	외선부 정용숙(13)	1270	이희재	8	장년1부 김진숙(4)	1293	최관호	19	외선부 김명환(4)
1248	송리버트	19	외선부 이명순(13)	1271	최병숙	8	장년1부 유옥영(4)	1294	보로아	19	외선부 이득복(3)
1249	아미오서	19	외선부 이문영(1)	1272	이희숙	7	장년1부 이형자(4)	1295	유은희	19	외선부 이우철(1)
1250	김종욱	5	청년2부 최숙자(5)	1273	최훈하	1	장년3부 김영숙(1)	1296	정희자	14	청년2부 정성환(1)
1251	전현용	5	청년2부 김동훈(5)	1274	지옥희	16	장년1부 윤원희(2)	1297	김민서	1	청년1부 최종진(1)
1252	김수자	9	청년3부 이복연(9)	1275	노유경	6	청년2부 이규숙(7)	1298	이혜수	6	소방부 이희준(2)
1253	지진욱	10	청년2부 김태현(10)	1276	박미선	10	청년2부 장수준(1)	1299	오석영	19	청년1부 이명준(1)
1254	이영진	1	장년1부 임영선(1)	1277	김영진	1	장년2부	1300	문병철	19	대학부 김성준(1)
1255	이옥선	1	청년2부 노경선(1)	1278	이은은	1	장년1부	1301	박희주	19	외선부 강우진(15)
1256	김경홍	13	청년1부 이영숙(13)	1279	김지혜	19	대학부	1302	비비아	19	외선부 이우철(15)
1257	서민주	19	대학부 이재영(9)	1280	성하나	15	청년2부 이명연(16)	1303	정규호	1	청년2부 서지현(1)
1258	이민지	14	청년2부 이영숙(14)	1281	이진원	19	청년1부 이연철(7)	1304	김태원	1	고등부
1259	박용창	4	청년1부 한영숙(4)	1282	노재연	7	청년2부 이종재(7)				

* 찬양회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5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1. 남녀전도회 전도회장 전체 월례회
일시: 23일(오늘) 15:10
장소: 교육관 501호

1. 김광지 성도(정재봉 성도의 모친, 송서옥 권사의 시모, 3교구 개나리3구역) / 16일 별세, 18일 장례
2. 이장식 성도(김기덕 은퇴권사의 남편, 5교구 수서2구역) / 16일 별세, 18일 장례

1. 유대근 군(유병봉 집사, 장순자 집사
의 아들, 8교구)과 이혜선 양(이명철
성도, 중송성 성도의 딸, 구로동교회)
/ 29일(토) 12:00 강남해당문원빌 1층
아모르홀

2. 김שמנ 군(홍춘금 씨의 아들)과 한효선
양(한삼순 성도, 정지혜 성도의 딸, 8
교구) / 29일(토) 18:30 도량진 웨딩홀
리치 11층

일 자 : 4월 29일(토)
시 간 : 17:30~20:00
장 소 : 제2교육관 4층

일 시 : 4월 30일(다음주일), 12:30
장 소 : 제1교육관 307호
대 상 : 60대 남녀 성도

일 시 : 5월 3일(수), 10일(수) 수요 2부 예배 후
장 소 : 베다니홀

원활한 주차 관리를 위해서 차량 안내부의 지시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종직제(장로·안수집사): 제2교육관 지하3·4층
- 일반 성도: 차량안내부의 지시에 따라 주차

	24(월)	25(화)	26(수)	27(목)	28(금)	29(토)	30(주일)
설교자/기도자	양재웅/한송규	최종철/최경하	하중철/구창희	안치원/이희우	정종신/김현철	이희식/임태주	하중철/강영미

날짜	예배	찬 양	사 회 기 도	설 교	
4/26	수요 I	죄짐에 눌린 사람들 (호산나 찬양대)	이창덕	김연홍	구원의 복음 (엡 1:3-14) 나광영 목사
4/26	수요 II	감미찬 향유를 주께 드린 (실로만 찬양대)	김익환	김정수	영생을 얻으려면 (막 10:17-31) 이정훈 목사
4/28	금요집회	첼로 이경필 / 소년부 찬장단 / 호산나 찬양대	김영훈		양재웅 목사
4/30	주일 I	(예배 전 찬양)	정성연	전계식	감 사 (시 30:1-4) 안치원 목사
4/30	주일 II	그리스 하나님의 사랑 / 스프라노 장송현악기부합주 찬양대 솔로리스트	장 훈	전홍용	감 사 (시 30:1-4) 임현덕 목사
4/30	주일 III	내게 있어 모든 것을 / 비올라 이정필 합창부 / 오케스트라	전진호	노영한	감 사 (시 30:1-4) 정병민 목사
4/30	주일 IV	어두운 내 눈 밝히사 / 비올라 오미가(아현 오케스트라)	이성진	김광국	감 사 (시 30:1-4) 김현덕 목사
4/30	주일 V	갈보리산 위에 / 테너 표세현(예쁜 찬양대 솔로리스트)	이재원	임창식	감 사 (시 30:1-4) 정철민 목사
4/30	주일찬양	가브리엘 혼성중창단 / 임미연 찬양대	이재원	안준모	내려 오라 (눅 19:1-10) 조규호 목사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본 당
금요집회	저녁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 당

접 회	시 간	차 량
화요일점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일차회	저녁 7:00	금요일점회 후 본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도착는 주일 10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필리핀어, 한국어 이외는 주일 9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에 불어까지 있습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선교관 1층
유아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아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동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동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동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동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동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학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년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분	시간	장 소
청년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청년 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년 3부	오후 12:50	교육관 307호
소망 부	오후 12:15	갈릴리움
사랑 부	오후 11:00	복직전 지하1층
예배다부	오전 9:00(약 100명) (주)오전8:30~9:40 (기)제7교구(제9교)	제2교육관 1층
타미 부		교육관 110호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메디나 홀
총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국립재민교육	주간교육	총현복지관
전통문화교육	오후 11:00	아멘 홀

사무국

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 2) 중환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은사를 전하게 하소서.
- 3) 2006년도 단기 선교와 모든 선교 공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게, 선교에 방관자가 없게 하소서.
- 4)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요 인도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전도목회 은혜를 주옵소서.
- 5)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 6)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 7) 5대 목회자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헌천복희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윤곽되게 하소서.
- 8) 교화에 속한 재단(유지·돈산·복자)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 위임목사 김성관

김기철	김호수	노광민	이병환
남기우	김종구	최무길	이창호
김광남	이동훈	임무진	전용호
이정우	한승진	한승진	황기원
한용철	이형수	안동현	황기원
최정우	이계민	박덕양	이태호
박승규	권덕승	조종환	배승호
이성현	김정현	전고현	이정현
이신호	최희진	노영환	박철민
신상수	고세승	강철형	김영준
장철환	김승곤	함광주	윤대민
안석현	임근언	김정국	김종준
김은철	전희태	김신국	전계성
장승규	전노배	석영식	구재환
최하영	신길진	유상배	박대현
신광철			

이종대	정원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여근근	안성덕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고정환	위원장	김익찬	장 준	임현덕
이영희	최정진	하종철	이성진	정종신
양재용	이승준	조규호	최성근	이재영
이경준	이광수	김준희	유승진	황진섭
정성진	이광훈	김대식	김성훈	

■ 여전도사

신동자	윤신숙	한영준	김연익	홍순애
이옥주	김발자	안태순	김정연	강덕필
최보실	전은희	김영순	김경자	김정희
이복순A	류진희	한성림	임태주	강영미
옥미자	숙미자B	장호숙		

■ 찬양강도들 강임주

전임지희자 서운성	김원섭
전임도학자 조수연	■ 전임연주자 장원희
전임고지 김효원	